

1. 우선 시간 재고 푼다.

당연한 말입니다. 듣게 세트까지 완벽히 구성되어 있으면 듣기까지 하고 푸세요. 25분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푸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하루를 실전 연습을 한다 하면 가장 이상적인 시간은 수학 모의 풀고 나서 점심 먹고나서인 실제 영어 시간에 푸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독재생의 경우 예를 들어서 2교시 수학모의를 풀고! 3교시에는 영어 모의를 푼다! 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럴 시간이 안 날 경우는 1주일에 자신이 자습시간을 정해서 푸세요.

2. 다 풀고 뭐하나요?

다 풀고 우선 채점을 합니다.

만약에 채점을 한 다음, 한 번 답 읽어보고 "아 이래이래서 답이네" 하고 그 모의고사를 던지시면 70분 동안 푼 시간은 날리시는 겁니다.

물론 점수 자체에 너무 일회일비하시면 안됩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수능이니깐요.

1- 시험에서 나를 가로막았던 구문을 다시 본다

시험장에서 분명히(특히 비연계지문)에서 버벅대게 한 구문이 존재할 것 입니다. 그 구문을 형광펜 치고 강의나 책을 통해 얻은 구문 지식을 이용해서 분석하시고 자기 것으로 만드세요! 물론 그런 구문이 아주 똑같이 수능에 출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구문을 공부하는 것으로 응용력 및 양적 측면에서 남들보다 우위에 서게 됩니다.

2- 어휘를 체크한다

시험장에서 분명히 모르던 어휘가 존재할 것입니다. 사전과 예문등을 조합해(예문은 모의고사에 있으니 얻기 쉽겠죠?) 그 단어를 자기 것으로 만드세요!

단순한 암기보다는 예문을 통한 암기가 자신을 더욱 강하게 만들 것 입니다.

3- 자신이 왜 멘붕되었는지(시험을 말렸을 경우) 점검해 보시고, 약점 유형을 치료하세요!

시험장에서 자신을 발목 잡은 지문이 분명히 존재할 것 입니다. 최고난도 빈칸추론일수도 있고, 틈을 파고드는 어법 문제일수도 있고, 혹은 시간이 촉박한 상태에서 장문이 읽히지 않아 뒤 문제들을 어이없게 날려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각 부분에서 어떤 모의고사든 분명히 '약점 유형'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결해야 할 것을 해결해야 하는 것이 여러분의 몫입니다.

4- 이해가 안되었던 지문이나 논리 흐름등을 잘 잡았는지 본다.

EBS 연계지문이 생소하면 인용 페이지등을 통해 EBS 본교재와 함께 그 지문을 다시 보고 해석해보는 것만으로도 공부가 됩니다.

비연계 문제, 가령 장문이나 빈칸의 경우에는 내가 해석을 제대로 하고 글을 이해한 상태에서 문제를 푼 것인지 혹은 감으로 찍은 것인지를 정확히 판단해보고, 빈칸의 경우는 선택지도 공부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왜 실전연습을 강조하는 것인가?

사실 평소에 시간 재고 푸는 분들도 있지만(나쁜 것은 아닙니다), 45문 set로 푸는 것과 평소에 8문 set로 푸는 것은 실제 주어진 환경 자체의 중압감 자체가 다릅니다. 이 과정을 반복해서 수능날 자신이 행할 수 있었던 안 좋은 풀이 습관도 교정할 수 있고, 실전력을 조금이라도 키울 수 있습니다.

4. 어떤 모의고사가 가장 이상적인가요?

모의고사는 크게 3 종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수능완성 실전편도 시간 재고 푸는 걸 추천하는데, 일단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 1) 완전 비연계: 주로 사설모의고사나 교육청 모의고사입니다
- 2) 연계+비연계: 제가 내는 모의고사나 다른 모의고사들 등등이 이런 류에 속합니다.
- 3) 완전 연계: EBS 원문등을 100%로 구성된 모의고사입니다.

2가 짱이냐? 라기 보다는 3개 다 고유한 특성이 있습니다

1): EBS 버프로 자신이 문제를 푸는 것인지, 실제 독해력 등이 더 필요로 할지 체크 할 수 있습니다. 실제 10월 교육청이 6,9 평가원보다 지문의 수준은 비슷함에도 등급컷이 훨씬 낮은 사례들이 있는 이유는 EBS 버프의 영향도 있습니다.

2): 실제 시험에서 맞닥트리는 상황이 수능과 비슷합니다. 문제의 난이도 들에 따라 다르지만 연계 문항을 빠르게 풀고 비연계에 막히는 자신을 발견할 지, 아니면 연계 문항도 제대로 못 풀거나 멘붕 상황에 빠지는지에 대한 상황을 시뮬레이션 화 하는데 좋습니다

3): EBS에 대한 효과적이 학습이 가능합니다. 작년 9평에도 나온 지문의 소재지만, '익숙한 것과 아는 것은 다릅니다; 제가 학기 초에 EBS 공부법에 대해 쓴 글에도 익숙한 것과 아는 것은 다르다는 것이 변형문제를 푸는 이유라고 설명했고요.

가장 이상적인 것은 이 3가지 형태의 모의고사를 돌려 푸는 것 입니다. 일주일에 세 번 중 하나는 완전 연계, 하나는 연계+비연계, 하나는 완전 비연계 등등요..

이 글이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